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곳 일본에서 처음 보내는 여름은 어린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저에게 잊혀진 여름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5 월 말에서 6 월 초에도 30 도 까지 올라간 이곳의 기후는 7-8 월 최고 39 도-40 도 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여름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저는 상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밴쿠버 20 년 생활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잠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 팔과 반 바지만 입어도 춥지가 않다니... 내가 이곳에서 추위를 두려워 하지 않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남자다움의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 모기들에게 사랑을 단단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은 더위를 즐기는 강한 남자보단 모기를 더 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 여름이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밴쿠버와 달리 차가 없이 대중 교통(자전거가 최고입니다)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곳 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모든곳을 걸어서 다닙니다. 처음에는 20 분 걷는것이 힘들어 오리처럼 입이 나와있던 아이들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 시간 넘게 걸어도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어가자고 말하는 아주 튼튼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기후에 잘 적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어적응은 첫째 예린이가 가장 빠릅니다. 이전 예린이가 참 많은것을 알려 줍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전 아직도 말이 아닌 몸으로 일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많이 웃습니다. 어색해서 웃고, 몰라서 웃고, 도움이 필요해서 웃고... 참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말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곳 삶을 통해 새삼 놀라며, 저희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역은 여름에도 계속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쓸 예정 입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롭게 일본의 세명의 남 학생들(갱끼, 타꾸야, 코지)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저를 만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참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 인턴쉽을 온 샘과 호세아라는 두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8 월까지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좋은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에 목말라 하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곳 일본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홍두표 선교사가정이 드립니다.